

금모래 빛·갈잎 노래~ 살고 싶은 '강변의 도시'

혁신도시 배후도시로 급부상하는 나주 남평읍



- 남평은 어떤 곳
- 광주에서 15km, 면적 5420ha, 인구 8083명
- 동요 '엄마야 누나야' 만든 안성현의 고향
- 광주 남구와 공동학군
- 농공단지·신도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순조



- 강변 신도시 조성 사업은
- 730억 투입 동사리 일원 31만3000㎡ 개발
- 아파트 2500여 세대 건립
- 관광호텔·오피스텔·상업시설 등 들어서



- 야구의 메카 발돋움
- 폭 12m·길이 200m '타이거즈 거리' 조성
- 김용용·선동열·김봉연 등 핸드프린팅 30개 설치
- 지석천변 둔치 야구장선 유소년 선수들 미래 꿈꿔



- 풍부한 관광상품들
- 드들강변 솔밭 유원지 캠핑코스 각광
- 보물 '세존과불탱'·등록문화재 남평역 등
- 읍내 곳곳 수백년된 노거수들 위용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시인 김소월의 시에 나주시 남평읍 출신 작곡가 안성현(1920~2006)이 곡을 붙인 이 노래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남평읍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이 이 노래를 만들 어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엄마야 누나야', '부용산'의 음악가 안성현의 고향인 나주시 남평읍이 혁신도시 배후도시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혁신도시 반사이익=남평읍이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덕이다. 공공기관의 신사옥 건립과 이전 과정에 주변 도로가 정비되는 등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또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받고 있다.

혁신도시의 인프라 및 편의시설 등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특수성도 큰 강점이다.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임직원 및 건설인력의 숙소뿐 아니라 쾌적한 전원생활을 원하는 광주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리적 위치도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이 때문에 지난 10여 년 동안 남평의 대표적인 흥물이었던 옛 서라파트가 리모델링을 거쳐 조기에 분양되기도 했다. 또 광주 남구와 공동학군 지역이어서 교육 환경도 좋다.

◇혁신도시 배후단지 탄력=남평에서는 최근 4000억원 규모의 비용이 투입되는 강변 도시개발 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신도 산업단지 조성 등

도로 정비 등 인프라 갖추고 새로운 일자리도 속속 창출 쾌적한 전원 생활 욕구 충족 신도시 건설 박차 장밋빛 미래

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혁신도시 배후단지로서의 모습을 서서히 갖춰가고 있는 셈이다.

광주에서 남동쪽으로 불과 15km 떨어져 있는 남평은 면적 5420ha에 인구 8083명이 거주하는 작은 지역이다.

최근 혁신도시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명품 주거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남평의 변신 중 대표적인 것은 '강변 신도시건설'이다. 강변 신도시는 드들강변을 따라 남평읍 동사리 일원 31만3000㎡(9만5000평)에 사업비 730억원을 들여 25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관광호텔, 근린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올해 완공을 목표로 오피스텔과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은 이미 승인을 받아 착공 준비 중이다.

또 강변도시 상업지구에 조성된 '타이거즈 거리'는 남평을 찾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이거즈 거리'는 총 사업비 3억원을 들여 폭 12m, 길이 200m의 보행 전용 도로에 타이거즈 역대 레전드급 감독·선수들의 핸드프린팅 30개를 설치한다.

핸드 프린팅 선수·감독으로는 김용용·서정환·선동열·김봉연·이상윤·이종범·김종국·윤석민·나지완·안치홍·이용규 등으로 원판 제작을 마쳤다.

이밖에도 지석천변 둔치에 조성된 남평 지석천 야구장은 나주가 미래 야구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드들강변 유원지도 주목=남평 드들강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물이 맑고 금모래가 많아 찾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수질이 오염되고 모래가 사라지면서 그때의 명성이 사라져 버렸다.

최근 남평 드들강 솔밭유원지가 캠핑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주말이면 드들강변에 넓게 펼쳐져 있는 200여년 된 소나무와 수양버들 사이사이에는 오색 텐트로 가득했다.

또 솔밭 끝자락에 세워진 '엄마야 누나야'의 작곡가 안성현의 노래비와 조선 중기에 지어 운선기 선생이 세웠다는 '탁사정(濯斯亭)'이 조화를 이루면서 드들강변의 멋스러움을 더해준다.

◇문화재 등 관광 상품도 풍부=남평은 보물 제 1279호 '세존과불탱'이 보관된 죽림사와 유형문화재 제126호인 남평 향교, 등록문화재 제299호 남평역 등 유서 깊은 다양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또 읍내 곳곳에 기품과 위엄 있는 수백년 된 노거수(老巨樹)들이 마을을 보호하고 있어 읍 전체가 휴식공간이다.

드들강변을 따라서 남평대교까지 산책길은 봄이면 청보리와 유채꽃이 만발해 자연거를 타거나 걷기 좋은 곳이다.

김영수 남평읍장은 "남평이 나주 번영을 이끌어 갈 혁신도시의 건설에 첨병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나주=글:신승철기자 ycsn@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솔밭유원지.

나주시 소화천 정비 우수기관 선정

나주시가 '제21회 방재의 날'을 맞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나주시는 "소방방재청에서 지난 3월에 전국 1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3년 소화천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사업의 조기 발주와 현장 시공 상태 적정성과 유지관리 상태 등 전반적인 추진실태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홍영민 주무관이 국무총리 표창을, 박형규 주무관이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도 함께 누렸다.

이반 수상으로 정부로부터 2015년 소화천정비사업 예산 배분시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4개 지구 6개천의 소화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남평 화산천, 노안 영안천, 다시 사직천, 왕곡 월천천과 정촌천을 완료할 계획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LG화학 나주공장·초록우산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 협약

LG화학 나주공장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다문화가정 아동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LG화학 나주공장은 지난 26일 나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LG화학 나주공장 민경호 공장장 및 나주 초등학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LG화학 나주공장은 후원금 75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즉시 전달한 후 다문화 가정 아동 및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인 '톡톡(TALK TALK)'을 후원하기로 했다.

'톡톡'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자신감을 고취시켜 위해 개별 언어치료와 체험학습, 말하기대회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앞서 LG화학 나주공장 사회봉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는 '사랑의 품앗이' 봉사활동으로 관내 요양나이의 집, 수덕의 집, 백양실버타운에 15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의류기기, 휠체어 등 필요품물 전달했다. '사랑의 품앗이' 봉사활동은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남평초 합창부 호남예술제 최고상

나주 남평초등학교(교장 박순옥) 합창부가 최근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제59회 호남예술제' 합창경연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남평초 합창부는 어린이들에 대해 음악을 통한 품성과 인성을 길러주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남평초 합창부는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부서인 '칸타빌레'를 중심으로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박순옥 교장은 "합창부뿐만 아니라 남평초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이달의 노래 부르기, 1인 1악기 연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대원빌딩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KORAIL 광주본부
한국관광공사
강원권협력단

5월 31일(토)출발 당일 기차여행	6월 13일(금)출발 무박2일 기차여행	6월 20일(금)출발 무박2일 기차여행	7월 18일(금)출발 1박3일 기차여행	7월 18일(금)출발 1박3일 기차여행
고수동굴/구인사/온달관광지	부산해운대/이기대/자갈치시장	부석사/선비촌/안동하회마을	정동진/울릉도/독도	백담사/월정사/양떼목장 지역
시간 일정	시간 일정	시간 일정	시간 일정	시간 일정
06:30 광주역 출발	22:00 광주역 출발	23:50 광주역 출발	1일째 광주역 출발	1일째 광주역 출발
11:00 단양역 도착	04:30 용궁사/해운대/동백섬/APEC 누리마루/이기대 공원	05:30 풍기역 도착	20:50 정동진역 자유관광 (일출, 모래시계공원)	20:50 정동진역 자유관광 (일출, 모래시계공원)
16:00 단양 고수동굴/구인사/온달 관광지 관광	13:30 자갈치시장 관광	06:30 부석사/소수서원/선비촌/안동 하회마을 관광	04:40 독도 관광	04:40 백담사/통일전망대/화진포의 성 관광
22:50 단양역 출발 / 광주역 도착	22:30 부산역 출발 / 광주역 도착	21:30 풍기역 출발 / 광주역 도착	17:30 울릉도 육로 관광 A코스	09:00 월정사/상원사/양떼목장/주문진어시장 관광
성인 75,000원~ 경로 73,000원~ 소아 70,000원~	성인(경로) 69,000원~ 소아 65,000원~	성인 77,000원~ 경로 75,000원~ 소아 74,000원~	3일째 울릉도 육로 관광 B코스/해안 산책로 관광	3일째 월정사/상원사/양떼목장/주문진어시장 관광
			02:00 강릉역 출발/광주역 도착	19:00 강릉역 출발/광주역 도착
			성인 320,000원~소아 290,000원~	성인 220,000원~소아 200,000원~